

現代와 哲學的 精神 ②

金午星

그러면 이러한 科學的 精神이 今日의 事實을 測定하는 氣象學的 武器가 될 수 있을까? 科學的 精神은 今日의 混沌한 事實을 그 歷史的 또는 『現實的 根據』에서 解明할 수는 잇을 것이다. 허나 氣象學은 氣候의 變則을 解明함으로써 그 將來를 豫測할 수 잇스나 今日의 科學的 精神은 單히 事實의 歷史的 現實的 根據만을 解明함으로서 그 事實의 將來를 豫測할 수가 업다. 그것은 今日의 그 어떠한 政治科學도 混沌한 政局의 推移조차 確實히 豫測치 못하고 잇슴을 보았서도 알 수 잇는 일이다. 科學的 精神은 事變의 近因이 되는 歷史的 現實的 根據를 資料의으로는 알 수 잇다 할지라도 그것의 世界的 意義는 把握치 못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天氣와 現實世界와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近代社會가 科學에 依해서 成立되어가지고 다시 科學 때문에 지금 混亂에 빠지고 잇슴도 主意하지 안흐면 안된다. 科學的 計算과 計量이 市民經濟를 生産했슴에 不拘하고 다시 科學的 計算과 計量의 過剩으로 因해 市民經濟의 混亂을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正統的 市民的인 『科學的 精神』이 今日의 混亂을 解明할 수도 豫測할 수도 업을 것을 짐작할 수 잇을 것이다. 그것은 近代 科學이 全體的 原理的에의 洞察을 떠나 臆우도 自己 法則에만 徹底하여 온대서 생겨진 科學의 非科學性을 暴露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當面の 目的은 事實의 뒤에 올 事態에의 可能性을 把握하는 것이다. 그런데 科學的 精神은 무엇보담 所與된 對象을 向하고 잇는 것이다. 確實히 잇는 것을 對象으로 해서만 科學的 精神은 自己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可能性이란 언제나 對象이 업는 事態를 일음이다. 말하자면 對象 업시 새로운 形態를 創造해내어야 할 것을 일음이다. 그러타고 하면 科學的 精神이 現代의 『轉形期的』 特徵은 把握할 수는 업다고 할 것이다.

近代 科學은 우리에게 實驗的 分析的인 精神을 길러준 功勞를 갖고 있다. 그러나 反面에 우리에게서 原理的인 洞察力, 綜合的 精神을 빼앗서 가기도 했다. 그런데 今日의 渦卷과 가튼 混沌을 擊理하며 未來의 可能的인 事態를 透視하는 데는 單히 實驗이나 分析으로서는 不可能하고 오직 原理的 洞察力과 綜合的 精神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哲學的 精神을 생각해 된다. 哲學의 根本精神은 根源的인 것, 本質的인 것, 『原理的인 것』을 志向하는 精神이며 나아가서 部分과 部分, 部分과 全體와를 한 개의 聯關 속에서 綜合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原理를 創造하려는 精神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近代의 哲學이 科學的인 綜合的, 分析的 精神으로부터 原理的 綜合的인 精神을 建設하기 위하여 努力해 온 事實을 妄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努力이 그러한 原理的 綜合的인 精神을 建設하지 못한 채 破產的인 危機를 當하고 있음도 看過해서는 안된다. 허나 그것은 本來의 哲學的 精神의 不肖에서가 아니고 近代哲學이 科學, 特히 自然科學의 影響을 버서날 수 업섯는 데서 생긴 悲劇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것을 指摘하는 것은 本來 科學과 哲學은 相容되지 않는다는 意味에서는 決코 아니다. 實際에 잇서는 科學은 언제나 『哲學을 母胎』로 하고 생겨진 것이며 原初的으로는 不可分的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哲學史의 첫 『페-지』를 裝飾하는 希臘의 自然哲學이 同時에 自然科學이였으며 近代에의 轉換期이던 文藝復興期의 自然科學이 同時에 自然哲學이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잇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가치 時代의 初創期에 잇서서는 混合, 乃至 統一되어잇든 哲學과 科學은 그 時代가 成熟됨에 따라 차츰 分離하게 된다. 哲學은 그저 原理的 綜合的인 것만을, 科學은 特殊 對象의 實驗과 分析만을 일삼게 된다.